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2-47호 / 8월 20일

IMD 보고서, 중국의 국가경쟁력 세계 31위

1. 개요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2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종합적인 국가경쟁력은 작년의 33위에서 두 단계 상승한 31위, 국가경제력은 두 단계 상승한 14위를 기록함.
- 중국은 경제 사회 각 부문의 총량규모 및 증가율 지표에서는 높은 경쟁력을 보였으나, 질적인 측면과 정부 및 기업의 효율성, 금융시스템 등은 열위를 면치 못함.
-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항목은 1인당 GDP 및 생산성, 금융효율, 교육·보건부문의 공공지출, 기술인력 수준, 사회보장 등 대체로 체제전환 과정에서 개혁이 진행중인 분야임.
- IMD는 매년 <국가경쟁력연감>을 통해 세계 47~49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해 오고 있으며, 2002년도 보고서는 49개국 314개 지표를 근거로 작성되었음.

- 314개 지표는 128개 경성지표(hard data)와 115개 연성지표(soft data) 및 순위를 매기기 어려운 71개 참고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바, 따라서 실질적인 평가항목 지표는 243개임.
- o 경성데이터는 주로 GDP, 실업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 사회 관련 공식 통계들임. 연성데이터는 기업경영자의 자질 평가 등 계량화 하기 어려운 항목들로 해당국가 CE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임.

2. IMD 보고서의 중국 국가경쟁력 평가 내용

□ 243개 평가항목 중 중국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는 20개 항목의 분포를 보면 경제활동 성취도 6개, 정부효율성 5개, 기업효율성 2개, 인프라 및 사회시스템 7개 등임.

- 경제활동 성취도 부문에서는 부가가치 총액과 증가율, 전체 취업인구 및 비율 등이 높은 경쟁력을 보임.
- 정부효율성 부문에서는 높은 저축, 낮은 조세율, 경제발전에 따른 정치체제, 입법, 정책 대응 등 항목이 경쟁우위를 보임.
- 기업효율성 부문에서는 종합 생산성 증가율이 경쟁우위를 나타냄.
- 인프라시설 및 사회시스템 부문에서는 인구, 통신투자, R&D 종사인력과 사회가치관이 경쟁우위를 나타냄.

□ 중국의 경쟁력이 최상위권에 속하는 9개 항목의 지표를 중심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국은 경제의 총규모나 성장률 등의 측면에서 경쟁우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경제의 전체 규모면에서 2001년 중국의 구매력평가 기준 GDP는 5조 3,860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환율 기준으로 산출한 GDP도

6위를 차지하여 이탈리아를 앞서고 있음.

- 투자, 저축 등의 지표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실제 외자이용액이 세계 6위를 차지한 것은 외국자본이 중국경제 발전을 낙관하고 있음을 시사함.

-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증가율 1위, 종합생산증가율 3위로 가장 두드러진 경쟁우위를 보임.

- 정보통신 분야의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3위로, 중국의 정보화 추진 및 기술인프라 확대가 기술혁신,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선진국과의 격차 축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줌.

- 개인소득세가 1인당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바, 이는 중국정부의 재정정책 운용 여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 줌.

- 사회시스템, 법제, 문화 등의 측면에서도 중국은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보유함. 예컨대 신규 입법이 기업경쟁을 유발하는가, 사회가치관이 경쟁력 제고에 유리한가, 국가의 대외이미지가 무역 촉진에 기여하는가, 정치체제가 경제위기 대응에 적절한가 등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그러나 중국은 경제 사회 발전의 질적인 수준과 1인당 비중 측면에서는 크게 뒤져 있음. 중국이 최하위권에 있는 6개 항목의 지표를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중국의 질적 측면의 열위가 확연히 드러남.(표 3 참조)

- 2001년 구매력평가 기준 중국의 1인당 GDP는 4,200 달러에 못미쳐 49개국 중 46위에 그침.

- 중국의 교육과 보건 부문 공공지출은 선진국의 1/4 수준임.

- 기업의 고급 경영인력 및 기술인력은 선진국의 50%에도 못 미쳐 최하위를 기록함.

o 반면 기술인력 면에서 인도가 7위, 고급경영자 면에서 칠레가 2위, 브라질이 5위를 기록함.

□ 한편 중국의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20개 항목의 분포를 보면 경제활동 성취도 1개, 정부효율성 7개, 기업효율성 7개, 인프라시설 및 사회시스템 5개 등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성취도 부문에서는 1인당 GDP 수준이 평가 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속함.
- 정부효율성 부문에서는 공공교육 지출의 GDP내 비중, 초등교육과 고등교육 수준, 금융시장 개방도와 효율성 등이 열위를 나타냄.
- 기업효율성 부문에서는 생산성과 경영자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인프라 및 사회시스템 부문에서는 PC 보급률과 에너지소비 효율이 낮고, 종합적인 인문분야 발전 지수도 낮음.

3. 평가 및 시사점

□ 중국은 20년 이상의 지속적인 고성장으로 경제활동 성취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성장의 질과 정부 및 기업경영의 효율성, 사회인프라 등의 측면에서는 국제 수준에 크게 뒤져 있음.

- 중국이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과 금융체제개혁,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인력 양성, ▲산업구조조정 및 무역구조 개선, ▲교육제도 개혁과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회보장제도 완비, ▲국민의 문화수준 제고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IMD도 중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WTO 규범에 부합하는 정부기능의 재정립, ▲투자장벽 철폐와 법규 정비를 통한 시장환경 개선,

▲사회보장체제개혁 가속화, ▲금융체제 합리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지적하고 있음.(***)

<표 1> 중국의 8대 부문 국가경쟁력 순위

부문\년도	2001	2002	부문\년도	2001	2002
국가경제력	16	14	기초시설	38	37
부가가치	19	19	기본인프라	27	33
투자	15	4	기술인프라	38	41
저축	11	4	비즈니스인프라	48	43
최종소비	22	28	보건인프라	33	38
생활비	15	31	에너지자급률	17	27
적응성	12	8	환경	29	31
국제화	36	33	기업효율성	36	44
경상수지	20	18	생산성	44	40
상품·서비스수출	23	22	인건비	10	12
상품·서비스수입	11	10	기업실적	36	44
환율	32	21	경영효율	36	44
증권투자	27	24	기업문화	34	40
외국인직접투자	13	23	과학기술	35	33
국가보호	44	38	R&D지출	30	29
개방도	34	35	R&D인력	34	31
정부효율성	21	23	기술경영	38	33
국채	9	11	과학환경	33	31
정부지출	28	24	지적재산권	33	37
재정정책	5	8	국민자질	40	37
정부효율	25	24	인구특징	7	2
정부참여	43	38	노동력특징	46	47
공평과 안전	25	25	취업	2	1
금융시스템	43	44	실업	37	14
자본원가	36	32	교육구조	49	46
금융효율	49	49	생활수준	47	43
주식시장활력	34	43	태도 및 가치관	36	26
은행부문효율	40	42			

<표 2> 중국의 국가경쟁력 우위부문

GDP(현행가격, 구매력기준, 10억달러)			GDP실질증가율(해당국 불변가격, %, 2001년)			전국R&D총인원 (천명)		
국가	순위	지표수치	국가	순위	지표수치	국가	순위	지표수치
미국	1	9,728	중국	1	7.3	일본	1	919.1
중국	2	5,386	알바니아	2	5.4	중국	2	893.0
일본	3	3,384	룩셈부르크	3	5.1	러시아	3	887.7
인도	4	2,510	아일랜드	4	5.0	독일	4	480.4
독일	5	2,075	러시아	5	5.0	프랑스	5	314.5
프랑스	6	1,455	인도	6	4.8	인도	6	187.6
영국	7	1,437	그리스	7	4.1	이태리	7	142.5
이태리	8	1,388	헝가리	8	3.8	캐나다	8	140.4
브라질	9	1,319	슬로베니아	9	3.7	한국	9	137.9
러시아	10	1,280	체코	10	3.5	대만	10	104.1
개인소득세유효세율(1인 당GDP내 비율, %)			사회가치관(경쟁력제고에 유리한지 여부, 설문조사)			신규 입법(기업의 경쟁유발 여부, 설문조사)		
국가	순위	지표수치	국가	순위	지표수치	국가	순위	지표수치
중국	1	0.00	미국	1	8.85	싱가폴	1	8.17
인도	2	0.00	싱가폴	2	8.30	룩셈부르크	2	7.72
인도네시아	3	2.29	홍콩	3	8.19	핀란드	3	7.19
태국	4	3.00	핀란드	4	8.08	아이슬란드	4	7.12
멕시코	5	3.68	아이슬란드	5	7.95	중국	5	7.06
대만	6	3.68	중국	6	7.94	덴마크	6	6.74
홍콩	7	5.00	스위스	7	7.66	말레이시아	7	6.65
베네수엘라	8	5.50	대만	8	7.61	아일랜드	8	6.60
남아공	9	5.52	캐나다	9	7.57	오스트리아	9	6.54
한국	10	6.83	아일랜드	10	7.54	스페인	10	6.48
종합생산성 실질증가율 (%, 2001년)			국가대외이미지(무역발전 촉진 여부, 설문조사)			통신부문투자 (연평균 GDP내 비중)		
국가	순위	지표수치	국가	순위	지표수치	국가	순위	지표수치
그리스	1	5.32	칠레	1	8.55	알바니아	1	1.887
베네수엘라	2	4.82	싱가폴	2	8.43	콜롬비아	2	1.559
중국	3	4.54	아일랜드	3	8.32	중국	3	1.525
러시아	4	4.52	핀란드	4	8.18	남아공	4	1.652
알바니아	5	4.36	미국	5	8.04	헝가리	5	1.121
남아공	6	3.63	네덜란드	6	8.03	체코	6	0.953
슬로베니아	7	3.13	덴마크	7	7.71	폴란드	7	0.920
헝가리	8	3.01	캐나다	8	7.65	칠레	8	0.861
체코	9	2.97	중국	9	7.42	뉴질랜드	9	0.817
인도	10	2.96	홍콩	10	7.33	슬로베니아	10	0.808

<표 3> 중국의 국가경쟁력 열위부문

1인당 GDP (현행가격, 구매력기준, 달러)			공공교육지출의 GDP 점유율(%)			종합생산성 (취업자 1인당 GDP, 구매력기준, 달러)		
국가	순위	지표지수	국가	순위	지표지수	국가	순위	지표지수
룩셈부르크	1	51,258	덴마크	1	8.3	룩셈부르크	1	98,787
미국	2	34,158	캐나다	2	8.3	미국	2	71,858
아일랜드	3	31,064	이스라엘	3	8.0	벨기에	3	70,227
노르웨이	4	30,142	스웨덴	4	8.0	아일랜드	4	66,594
아이슬란드	5	29,208	미국	5	7.4	이태리	5	64,495
스위스	6	29,062	남아공	6	7.3	프랑스	6	61,171
덴마크	7	27,965	뉴질랜드	7	7.1	노르웨이	7	60,445
캐나다	8	27,894	오르웨이	8	6.9	오스트리아	8	58,550
벨기에	9	27,429	네덜란드	9	6.9	네덜란드	9	58,249
오스트리아	10	27,021	오스트레일리아	10	6.7	캐나다	10	57,436
중국	46	4,189	중국	46	2.1	중국	47	7,375
보건공공지출의 GDP 점유율(%)			고급경영자공급(인력시장 공급상황, 설문조사)			전문기술인력공급(인력시장 공급상황, 설문조사)		
국가	순위	지표지수	국가	순위	지표지수	국가	순위	지표지수
미국	1	12.9	미국	1	8.3	이스라엘	1	8.74
독일	2	10.5	칠레	2	8.2	칠레	2	8.71
스위스	3	10.4	필리핀	3	7.97	핀란드	3	8.39
콜롬비아	4	10.2	덴마크	4	7.63	헝가리	4	8.30
프랑스	5	9.6	브라질	5	7.52	아이슬란드	5	8.28
슬로바키아	6	9.1	네덜란드	6	7.47	슬로바키아	6	8.23
아이슬란드	7	9.1	캐나다	7	7.46	인도	7	8.21
캐나다	8	8.8	홍콩	8	7.38	오스트레일리아	8	8.02
벨기에	9	8.8	핀란드	9	7.25	이르헨티나	9	7.94
오스트레일리아	10	8.8	아이슬란드	10	7.21	프랑스	10	7.90
중국	45	2.3	중국	49	3.59	중국	49	3.80